

치과 칼럼

치아 건강 상식 10 가지

1. 잇몸 치료를 받으면 치아가 약해진다?
 초음파를 이용해 치석과 치태를 제거함으로써 잇몸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을 없애주는 게 잇몸 치료 또는 딥클리닝의 효과입니다. 클리닝 후 치아가 더 흔들림을 느끼거나 시린 증상은 치아 뿌리에 붙어있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부엌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그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치주질환의 주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므로써 더 이상 잇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잇몸치료입니다.

2.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안 좋아진다?
 오랜 기간 동안 치아와 잇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잇몸뼈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 잇몸도 같이 주저앉으며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3. 잇몸이 약해 임플란트가 어렵다?
 임플란트를 하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아를 받쳐주는 치조골이 내려앉아 발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뼈이식으로 임플란트가 흔들리지 않고 잘 착상되도록 합니다. 또한 요즘은 Cgf 라는 자가 이식 수술의 도입으로 더욱 좋은 결과를 봅니다. 조절되지 않은 당뇨라든지 특정한 약의 지속적인 복용으로 잇몸뼈의 괴사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잇몸이 약해서 불가능한 임플란트 시술은 없습니다.

4. 잇몸질환 약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
 광고에 나오는 잇몸 치료제는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멉니다. 잇몸질환의 주범인 치석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5. 전동칫솔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좋다?
 손으로 꼼꼼히 하는 게 낫고 다만 편리함에 있어서 전동칫솔이 우위에 있지만 광고에 나오는 전동 솔의 효과는 의심스럽습니다. 필자는 한 번도 전동칫솔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6. 치아를 세게 닦을수록 이가 더 깨끗해진다?
 좌우로 심하게, 특히 칫솔모가 두꺼운 칫솔로 세게 닦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에 마모가 생겨서 치아 손상을 가져와 이 시립을 유발하고 심하게는 신경 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위-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꼼꼼히 양치해야 합니다.

7. 양치질은 아침-점심-저녁 3번만 하면 된다?
 치석을 일으키는 균원을 치태 또는 플라그라고 합니다. 이 치태는 어떤 것을 먹어도 15 분 내에 생성이 되고 이것이 제때 제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침과 반응하여 치석이 형성 됩니다. 주식 외에도 우리가 중간에 먹는 간식 후에도 양치를 하는게 충치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8. 유치는 빠지는 치아니 치료를 안 해도 된다?
 특히 유치에 생기는 충치를 방치하면, 진행 속도가 빨라 신경 치료 또는 이른 발치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영구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올 수 있고 아예 못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껌을 자주 씹으면 치아에 안 좋다?
 물론 당분 함유가 많은 껌은 충치를 일으킬 요소가 있지만 심 분 이상 껌을 씹으면 침을 분비시키고 이로 인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0. 칫솔의 머리가 클수록 좋다?
 큰 칫솔이라고 더 많은 면적을 잘 닦을 거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작은 머리 칫솔이 어금니 뒤쪽 또는 치아 사이, 치아의 위와 아래, 안쪽 부분을 꼼꼼히 닦는데 더 좋습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리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법률 칼럼

Blanket-L: 이민국의 까다로운 주재원 비자 심사를 피해 대사관으로

두 달 전쯤, 제가 잠시 근무했던 김앤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주재원비자가 한꺼번에 신청자 여러 명이 모두 거절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메모를 써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자산 규모만 10조 원 가까이 되는,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회사였습니다.

주재원 (L-1)비자는 최근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연장도 쉽지 않은 추세라서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뜻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라고까지 불립니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L-1보다는 E-2로 돌려서 많이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해 보니,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주주가 50%를 넘는 지배구조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treaty에 기반한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 드린 바가 있듯이, L-1비자나 E-2비자는 회사의 사업성과 비자 신청인의 자격 조건이 잘 설정된 비즈니스 플랜이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간단한 변호사 레터로 대신해서 제출했습니다.

RFE를 검토해 보니 이민국은 주재원들의 간부직 직책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요청했습니다만, 이조차 만족스럽게 대응이 되지 않아 결국 비슷한 시기에 제출한 주재원 분들이 모두 한꺼번에 거절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대응 방안들이 담긴 메모를 받은 그 회사는 저에게 주재원 비자 재도전을 의뢰했고, 당시 그 회사에서 미국에서 보내야 하는 비자 지원자 수도 더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의 해외 자회사 상황

과 미국 내 자회사들의 매출 규모, 사업 운영 상황들을 근거로 Blanket-L청원서를 먼저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Blanket승인을 받기만 한다면, 그 회사는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해야 할 때 그 직원에 대한 개별 L-1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서울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만 받고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Blanket-L 청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 Blanket-L청원서가 회사 차원에서 대표로(?) 미국 이민국의 심사를 한 번만 받으면, 그 회사에 속한 직원들은 몇 명이라도 한국대사관 인터뷰만 거쳐서 미국지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처럼 한국에서 이름만 대는 회사라면 미국 이민국 직원들의 심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해 친숙한 미국 대사들을 거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저에게 전적인 신뢰를 주며 진행에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Blanket-L청원서를 Premium processing을 통해 열흘 만에 승인 받고, 이전에 미국에서 L-1비자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했던 모든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원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개별 주재원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클라이언트 개별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민법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CA Lns Lic # 0B18537

■ 은퇴 준비를 위한 재정계획 안내

**최근에 은퇴하셨습니까?
곧 은퇴하실 계획입니까?**

10% 즉석보너스

**401(K) Rollover
은행CD Account 이전**

철통같은 보장성 연금플랜
 증권시장의 위험성을 원천봉쇄하여 원금이 보장되며 Social Security 연금처럼 평생 마르지 않는 인컴이 보장되는 플랜

- Transfer: 은행CD, IRA Accounts
- Rollover: 401K, TSP등 각종 직장 은퇴플랜

* 직장을 옮긴 분들은 그 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Account를 하루 속히 옮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신천 보험·재정 **714.323.7420**
 Email; choinsurance@yahoo.com

8308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과거의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중에는 손해 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철통같은 원금보장 덕분이지요"